

numbers 제 38호



주요 내용

2020. 03.13

1.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2. 1) 우리나라 현행 통계 분석
2)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 일반사회통계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오래 산다!

작년 말 통계청에서 특별한 자료를 한 가지 발표했다. ‘한국의 사회 동향 2019’인데 여기서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이란 주제로 몇 가지 데이터를 소개하면서 2018년 기준 우리 국민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가 6.55 세라고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져 6.73세가 된다고 했다. 즉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

건강 불평등이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건강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실제 소득 수준, 직업 유형, 학력, 결혼 상태별로 건강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넘버즈] 15호에서 설명한 ‘행복 취약층’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건강 취약층’도 존재한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적용된다. 이들은 술 담배를 더 많이 하고, 고혈압/비만율이 높고, 건강 검진은 덜 받고, 스트레스와 우울감도 더 심하다.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이들 ‘건강 취약층’에 대해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38호는 한국인의 건강과 건강불평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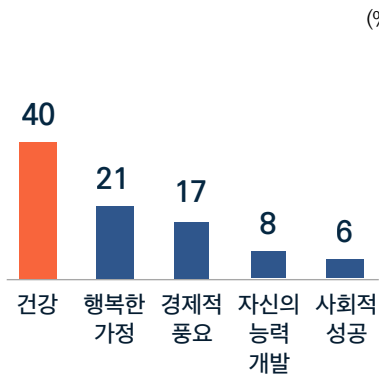
1

한국인,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낀다!

● 한국인, 삶에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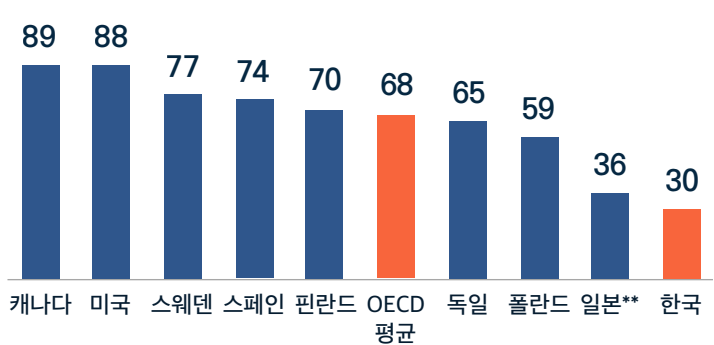
-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 결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은 가정이나 경제적 풍요보다도 건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는 인식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상위 5위)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전국 만19~79세 5,100명, 가구방문면접조사, 2019.09)

[그림]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하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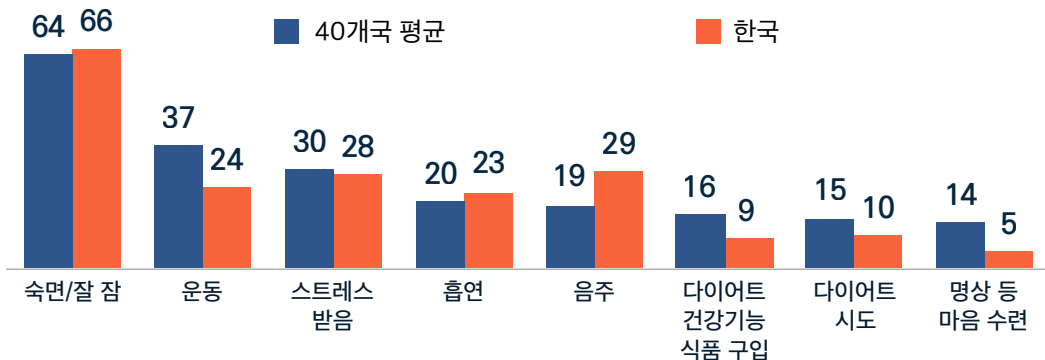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OECD, '보건 통계(Health Statistics) 2019', 보건복지부,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 의료', 2019.07.22

**일본은 2016년 수치

● 한국인, 세계 평균 대비 건강을 위한 행동 지표가 약함

- 글로벌 조사네트워크인 WIN(Worldwide Independent Network of Market Research)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 국제조사(WIN World Survey)를 실시한 결과, '한국'은 '세계 평균' 대비 운동은 적게 하고, 음주와 흡연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국가로 조사됨

[그림] 평소 건강 관련 주요 행동별 '항상+자주한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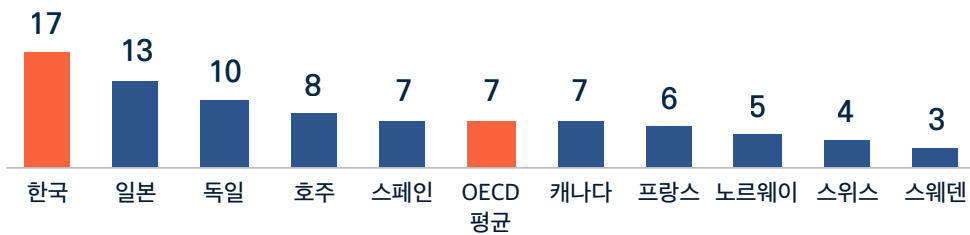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WIN World Survey, 2018년 10~2019년 1월 40개국, 30,890명 조사('항상+자주 한다' 응답 비율) 한국 갤럽,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과 관련 행동(2)', 2019.04.18

● 한국인, 병원 진료 횟수가 OECD 최고 수준임

-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0% 밖에 안되고, 건강을 위한 여러 활동 지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으로 인해 병원에 자주 가는데, 병원 진료 횟수가 OECD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원 환자의 입원 일수는 평균 19일로 OECD 국가 중 일본(28일) 다음으로 긴데, OECD 평균(8일) 보다 두 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남

[그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2017) (연간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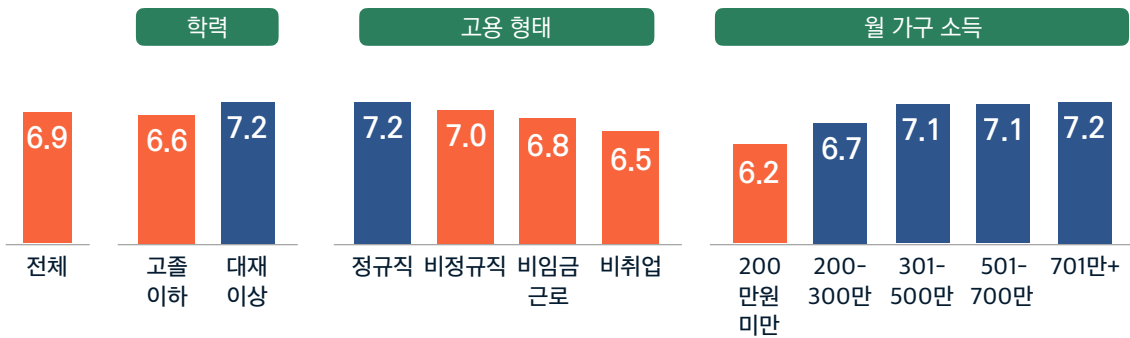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OECD, '보건 통계(Health Statistics) 2019', 보건복지부,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 의료', 2019.07.22
 **일본, 프랑스는 2016년 수치

2 건강 불평등의 문제

● 고학력/고소득층과 저학력/저소득층 간 건강 상태 차이가 나타남

-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이란 건강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이나 집단 사이의 차이, 격차를 지칭하는 용어로, 건강의 개인 간 변이(variation)가 아닌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를 나타냄
- 자신의 신체 건강이 동년배에 비해 어떠한지를 질문하여 일반 국민의 건강 상태를 측정된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비취업자,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주관적 건강 상태(0~10점, 평균값)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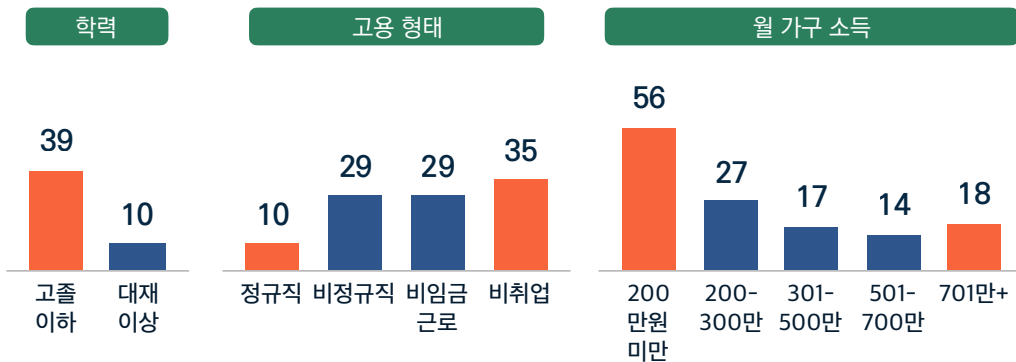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불평등실태 및 공보험의 가치에 대한 조사', 2020.03.02. (전국 만19세 이상 2000명, 대면 면접 조사, 2019.11)
 **매우 나쁨 0점 ~ 매우 좋음 10점으로 평가함

● 만성 질환 비율, 사회경제적 격차 크게 나타남

- 건강 불평등 현상은 주로 발병 단계에서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인되는데, '의사의 진단을 받아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에 대해 '저학력'/'저소득층' 그리고 '비정규직'/'비취업자' 층에서 크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그림] 만성 질환 비율 (3개월 이상 약 복용/치료 받고 있는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불평등실태 및 공보험의 가치에 대한 조사', 2020.03.02. (전국 만19세 이상 2000명, 대면 면접 조사, 2019.1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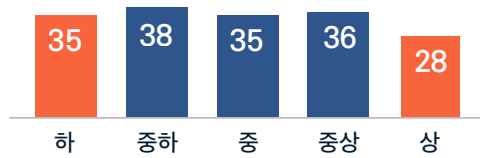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나는 건강 지표들

- 흡연, 비만, 고혈압, 건강검진 받은 비율, 우울감, 스트레스 등에서 소득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매일 흡연율(남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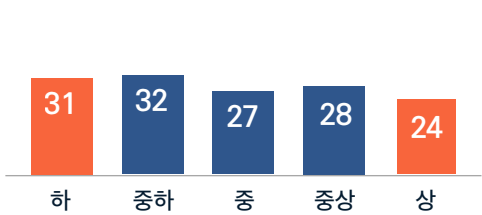


[그림] 비만 유병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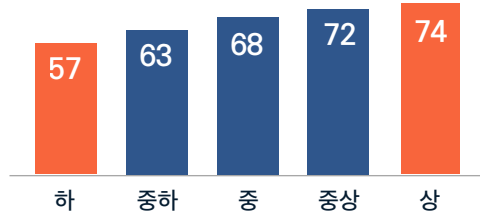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년도(2018)', (자기기입식, 2018.01~12)
 **표본 개요 : 매일 흡연율(만19세 이상, 2,713명). 비만 유병률(만19세 이상, 6,710명)

[그림] 고혈압 유병률 (%)



[그림] 건강검진 받은 비율(최근 2년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년도(2018)', (자기기입식, 2018.01~12)
 **표본 개요 : 고혈압 유병률(만 30세 이상, 5,443명). 건강검진 비율(만19세 이상, 5,982명)

[그림] 우울감(나는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다,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전국 만19~79세 5,100명, 가구방문면접조사, 2019.09)
 **'그렇다'는 4점 척도에서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그림] 스트레스(나는 종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전국 만19~79세 5,100명, 가구방문면접조사, 2019.09)
 **'그렇다'는 4점 척도에서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를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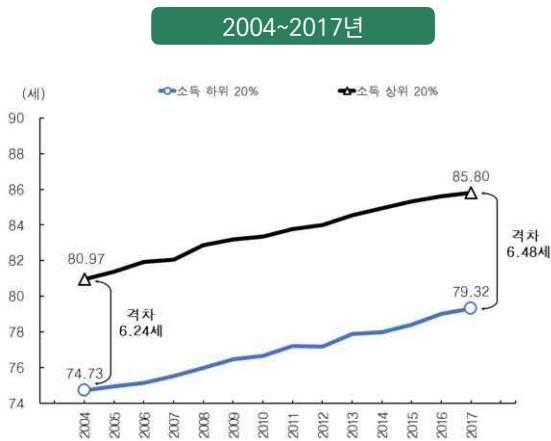
4

건강 불평등은 결국 기대수명까지 차이를 나타나게 함 -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기대수명이 6.6년 더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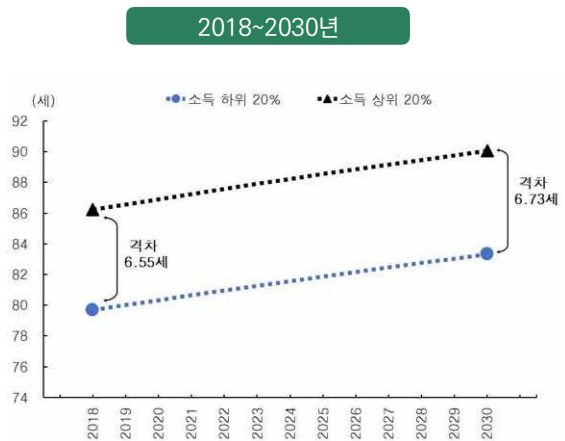
-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가 2004년 6.24세에서 2017년 6.48세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30년에는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차이가 6.73세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 전망

(%)



*주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전수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로 소득 5분위별 0세 기대여명을 제시함.
**자료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12.13, Khang et al.,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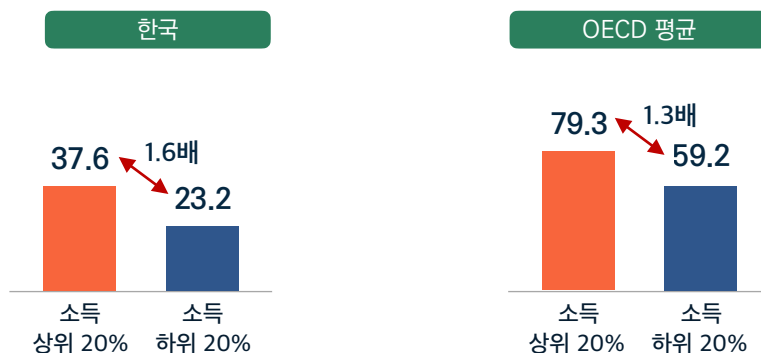


*주 : 2004~201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전수자료)의 연령별, 소득수준별 사망률 자료를 활용하여 'Lee-Carter Method'를 활용하여 2018~2030년 기간을 예측.
**자료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12.13, Khang et al., 2019.

●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주관적 건강 수준에서 소득 수준 간 격차가 더 심함

- 한국인의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매우+약간)는 인식(주관적 건강 수준)에 대해 소득 수준 상위 20%는 37.6%인데 반해, 하위 20%는 23.2%로 두 그룹 간 1.6배 정도 차이를 보임
- 한편 이와 관련 OECD 평균의 경우 '소득 상위 20%'는 79.3%, '소득 하위 20%'는 59.2%인 두 그룹간 1.3배 차이를 보여, 한국이 소득 수준 간 주관적 건강 수준 격차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주관적 건강 수준 비교(한국 vs OECD 평균) (%)



*자료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12.13.,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주관적 건강 수준 : 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매우 좋다' 비율

9 시사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행복, 돈, 사회적 성공에 앞서 건강이 우선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3p). 다른 어떤 것에 앞서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여긴다.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을 교환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도가 지나쳐 건강 염려증에 빠진 사람이 많다고도 한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중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도 이를 믿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며 쓸 데 없이 돈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건강을 가치있게 생각한다면 건강이 상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을 사전에 지키는 활동보다는 사후에 치료하는 데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 문제이다(4p).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려 운동하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절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다가 건강에 이상을 느끼면 그걸 치료하겠다고 병원을 들락거린다. 한국인이 OECD 국가 중 병원진료 횟수가 가장 많은 점(4p)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스도인들도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건강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며 땀을 흘리고 절제의 노력을 해야 한다. 건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한편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경건의 연습이기도 하다. 건강하려면 먹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한다. 방종과 탐닉에 빠지려는 자기 욕심을 제어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하기 위한 노력은 기초적인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내 운동, 등산 등 건강 활동을 증진시키는 동교회 모임 운영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빗대어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체력이라”고 말했다. 건강한 신체 안에 건강한 영이 깃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우리 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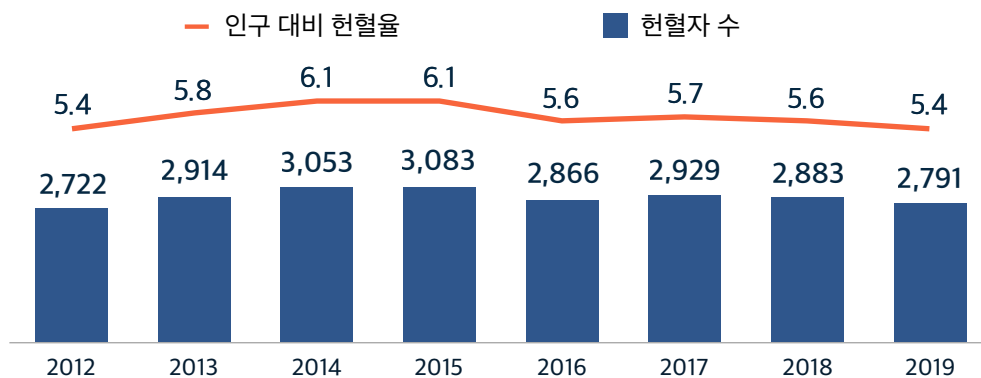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러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혈이 크게 줄어 현재 혈액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인 5일 이상을 한참 밑도는 3일분 안팎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이 필요한 시점인데, 헌혈 관련 통계를 소개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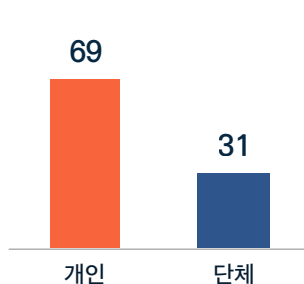
우리나라 헌혈자 수,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2019년 기준 전 국민의 5.4%)

- 우리나라 헌혈자(년 인원)는 2019년 기준 27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임
- 헌혈자 수(년 인원)는 2015년을 정점으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9년은 전년 대비 3% 정도 감소함)
- 개인과 단체별 헌혈 점유율은 2006년부터 개인이 단체를 앞서기 시작해 2019년 기준 개인 비중이 69%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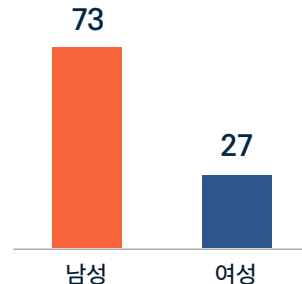
[그림] 헌혈자 수(년 인원) 연도별 추이 (%) , 천 명



[그림] 헌혈자 점유율(개인 vs 단체) (%)



[그림] 헌혈자 점유율(남성 vs 여성**) (%)



*자료 출처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e-나라 지표, '헌혈인구 및 개인 헌혈 비율', 2020.02.06.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혈액사업통계연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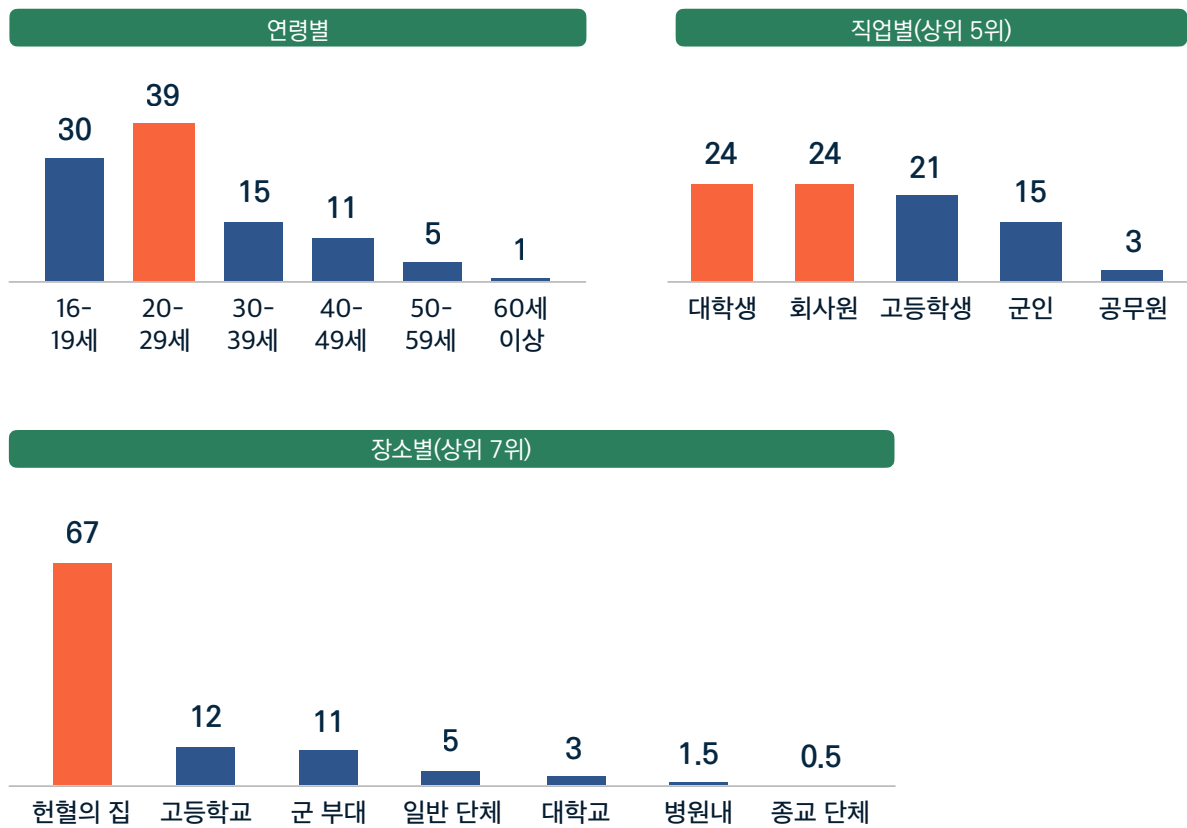
** 남녀 비율은 2018년 결과 기준임(출처 : '2018년 혈액사업통계연보')

● 20대, 대학생/회사원 층에서 헌혈 비중이 가장 높음

- 연령별로 '20대 연령층'에서 헌혈 비중이 가장 높음
- 직업별로는 '대학생'(24%)과 '회사원'(2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생'(21%), '군인'(15%) 등의 순임
- 헌혈 장소별로는 '헌혈의 집'이 67%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12%), '군 부대'(11%)임
- '종교 단체' 헌혈률은 0.5%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그림] 각 특성별 헌혈 비중(2018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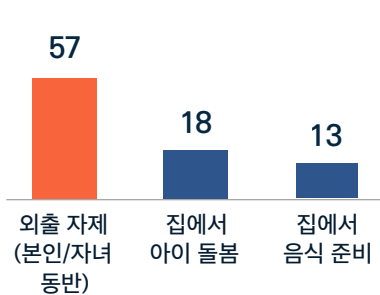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18년 혈액사업통계연보'

2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의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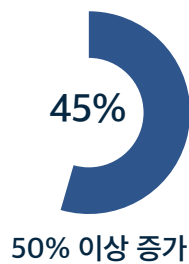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온라인쇼핑 50% 이상 늘었다”, 45%

-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일상의 변화를 질문한 결과 ‘본인과 자녀 동반 외출 자제’가 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온라인 쇼핑의 경우 ‘50%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이 45%로, 국민 10명 중 4-5명이 평소보다 온라인 쇼핑을 50% 이상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요즘 지하철을 타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보는데, 가장 우려되는 감염 경로를 묻은 결과, ‘대중교통 시설’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자녀가 만나는 사람/공간’(20%)으로 대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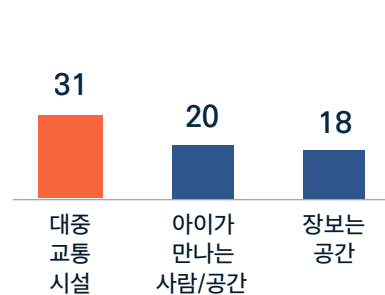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변화 (상위 3위) (%)



[그림] 온라인 쇼핑 증가 비율 (%)



[그림] 가장 우려되는 감염 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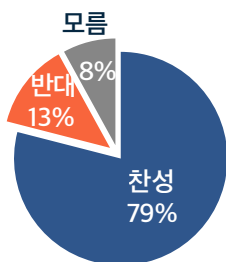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일보, ‘돌아서면 밥 차리는 돌봄돌봄... 집집마다 세계 전쟁’, 2020.03.06.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전국 30~50대 남녀, 1288명, 온라인 조사, 2/28~3/2), <https://news.joins.com/article/23723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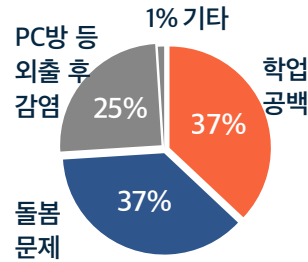
● 학교 개학 연장, 대부분 학부모(79%) 찬성

-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 개학을 3주 연기하여 3월 23일에 개학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이해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렇지만 개학 연기로 걱정도 큰데, 가장 큰 걱정으로는 ‘학업공백’(37%)과 ‘자녀 돌봄 문제’ (37%)를 1위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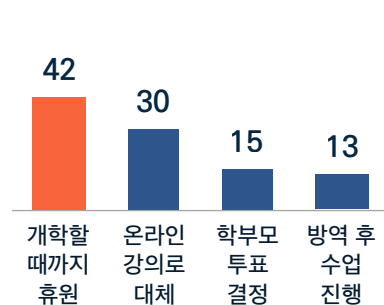
[그림] 초중고 개학 연기에 대한 학부모 찬반 (%)



[그림] 개학 연기로 인한 가장 큰 걱정 (%)



[그림] 학원 개원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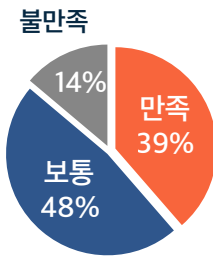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코로나로 학교 안가 만세?... 여름 방학 1주일 될 수 있다’, 2020.03.07.(전국 30~50대 초중고 학부모, 1,540명, 온라인 조사, 2020.03.03) (전국 30~50대 초중고 학부모, 1,540명, 온라인조사, 2020.03.03),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222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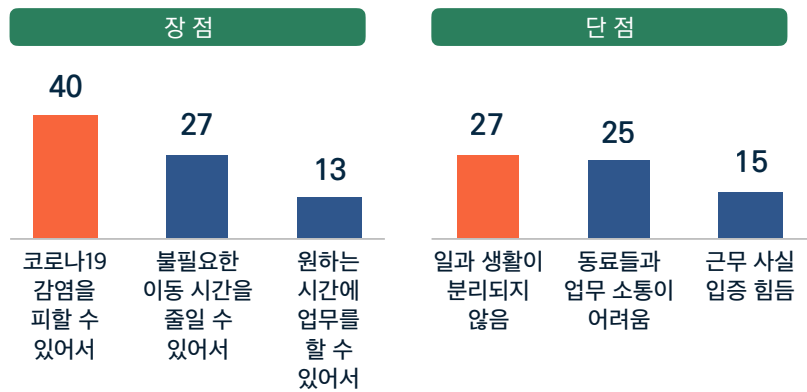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인 재택 근무 만족도, 그다지 높지 않아!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근무한 직장인들에게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 39%, 보통 48%, 불만 14%로 재택 근무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직장인들에게 재택 근무가 낯선 근무 환경인 것으로 보임
- 재택 근무의 장점으로서는 코로나19의 감염에 피할 수 있다는 점(40%)을, 단점으로는 일과 생활을 분리가 어렵다는 점(27%)과 동료들과 업무 소통의 불편함(25%)을 가장 높게 꼽았음

[그림] 재택 근무 만족도 (재택 근무자)



[그림] 코로나19 이후 재택 근무 장/단점(재택 근무자, 상위 3위)



*자료 출처 : 오픈서베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 관련 설문 조사', 2020.02.28, (전국 직장인 1,000명, 모바일 조사)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사교육비 역대 최대 증가](#)

연합뉴스_2020.03.10.

“초등생 사교육비 역대 최대 증가…‘아이 맡길 곳 없어 학원에’”



[초등생의 하루 일과 학교, 학원 학원 ..](#)

세계일보_2020.03.08.

“초등생 평균 학원 2.3개 다녀… 영어 최다”



[밀레니얼 세대\(20-30대\), 세대 미술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2020 세계 미술시장 보고서\)](#)

매일경제_2020.03.11.

“‘글로벌 미술시장 큰손 ‘밀레니얼 컬렉터’”



[부동산과 토지 공개념에 관한 조사 결과, 양극화 주범은?](#)

파이낸셜신문_2020.03.10.

“나우앤서베이 양극화 주범은 ‘부동산’이다”



[유튜브 저널리즘](#)

미디어오늘_2020.03.08.

“저널리즘의 미래 유튜브에 있을까”



[빅데이터로 보는 코로나19, 번지는 혐오 표현](#)

한겨레신문_2020.03.10.

“중국 검색하면 감염·공포…‘짱깨’ 혐오표현 사흘 만에 31배”

스토리가 있는 기사



[통계학자가 예측한 한국의 코로나 추이, 4월 5일 전후로 일상생활 복귀 가능](#)

중앙일보_2020.03.11.

“코로나 극복 가능 시점 통계 모델로 예측해 봤더니…”



[국회의원이 되려는 진짜 이유?](#)

조선일보_2020.03.10.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교회와 재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장로회신학대학교 안교성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_2020.03.12.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